

북한이탈주민의 가치체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규덕 (중앙대학교 동북아학과 북한개발협력전공 박사과정)*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일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첫째, 외향성, 자아성취욕구, 사회적 가치체계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하며, 둘째, 사회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223명 이었으며, 개인성향과 창업의도 간의 인과관계, 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을 위해 PLS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응성의 매개 효과 검증을 PROCESS for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향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 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아성취욕구 요인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사회주의적 가치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주의의 가치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 창업의도간의 사회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개인주의는 사회적응성을 거쳐 창업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핵심어: 북한이탈주민, 외향성, 자아성취욕구, 개인주의, 집단주의, 창업의도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까지 총 33,523명이 입국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왔으나 여전히 북한 내 가족 친지들과 연락이 닿으면서 남한의 소식을 북한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남한 사회에 북한 주민의 모습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통일부 통일백서, 2020). 지난 1990년대 이후 북한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는 개인상행위 등의 확산이라 하겠다.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해온 북한에서는 개인상행위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제활동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고, 그에 따라 무엇이든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장마당에 가지고 나와 사고 파는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가게, 식당, 개인서비스업을 비롯해 무역, 제조업까지 다양하게 창업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북한에 퍼지고 있는 개인상행위 등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가정신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현상으로서 어느 국가에서나 강조하고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에 대한 연구는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이론들은 서방세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직업을 잃고 이민을 한 대상으로 Shapero & Sokol(1982)의 주장에 매우 부합하는 대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겪은 두 사건이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이존호, 2020).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창업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개인성향,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창업교육, 역할모델 및 창업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으며(이존호, 2020; Katz & Gartner(1988)), 가정환경을 변수로 하여 창업의지를 측정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박재환 외, 2011). 북한이탈주민의 특색과 나아가 북한사회의 특징을 관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창업과 연관성이 있는 개인상행위 현상이 어떤 심리적 배경

* 주저자, 중앙대학 동북아학과 북한개발협력전공 박사과정, kdnoh87@mofa.go.kr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junghee@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lih2114@cau.ac.kr

· 투고일: 2021-09-10 · 수정일: 2021-12-20 · 게재확정일: 2021-12-22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사회주의 가치체계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이는 그들의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같은 논리로 비사회주의적 가치관이 강할수록 그들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전환경제를 경험한 지역에서 연구되었는데, 특히 통일 독일에서 과거 동독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관련 연구(Bährisch, 2014)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전환경제 속에서 창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하나재단(2019)이 실시한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보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2018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4.8%(일반국민 63.4%), ‘비경제활동비율’은 35.2%(일반국민 36.6%), ‘고용률’은 60.4%(일반국민 60.9%), ‘실업률’은 6.9%(일반국민 4.0%)을 기록하여 일반국민보다 고용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자립수단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창업을 할 경우 취업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겪게 되는 차별적 대우를 피할 수 있고 아울러 학력이나 경력 부족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조봉현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특히 이들에게 남아 있는 사회주의 가치체계 및 사회 적응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활동에 필요한 것은 창업 관련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창업의도를 키우고 경제적 생존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 주체로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나름의 각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경제적 활동이다. 이들의 창업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준비와 더불어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의도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의해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외향성, 자아성취욕구, 사회적 가치체계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둘째, 사회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2.1 북한이탈주민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과거 ‘탈북자’라고 칭한 적이 있으며, 용어의 순화를 목적으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있다. 그 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12683호, 2014.11.29. 시행)」이 채택되면서 ‘북한이탈

주민’이란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동 법률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덕규, 2020).

북한이탈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3국 어느 곳에선가 한국 입국을 고대하며 대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2000년대까지는 주로 중국 내 외국공관 진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경제적 목적에 따른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여 강제 송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외국공관 진입자들의 제3국 이송을 수년간 장기 지연시킴에 따라 이후에는 주로 동남아 지역 국가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천명을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229명을 기록하였다.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입국 당시 연령, 직업별, 학력별 통계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이들 가운데 매년 여성이 70-80%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직업은 노동자와 무직부양이 각각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중학교(초급, 고급)이 70%, 전문대 이상이 1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2 개인성향: 외향성과 자아성취욕구

인간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는 심리학자 등의 노력을 통해 그간 성격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1980년대 들어서 5대 성격 요인으로 성격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 때문에 ‘5대 성격요인 모델’은 성격을 분류하는 유용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김도영·유태용, 2002; Digman, 1990; Goldberg, 1993; Hough & Schneider, 1996).

통상 5대 요인으로는 ‘외향성(Extro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 ‘동조성(Agreeableness)’ 등 5가지 성격 특성을 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람의 행동과 성향을 설명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대 성격요인 중 외향성 변인을 사용할 것이며,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의 특성으로는 적극성, 사교성, 자기주장성, 활동성, 주도성 등이 있다.

자아성취욕구는 진정한 자기존재의 의미를 인식하고 자기의 성숙이나 발전을 위해 뜻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심리학자 Abraham Maslow은 인간 욕구를 다섯 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자기 존경욕구,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욕구 단계이다.

강영욱(2012)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실행 의지에 관한 연구에서, 소상공인은 자아실현 동기 및 생계형 동기가 강

할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봉호(2015)의 연구에서도 창업동기는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며, 성취 욕구 및 창업가 정신을 통해 창업의지가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양현봉·박종복(201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자가 창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비경제적 요인은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40.0%) 및 자아실현 욕구(33.7%)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공한 기업가처럼 존경받고 싶은 욕구(9.5%), 사회공헌(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남수(2012)는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 중 자아성취 욕구가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양재장과 남중현(2015)은 창업동기를 경제요인과 비경제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자아실현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이 4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2.3 사회주의 가치체계

선행연구에 따르면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출신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주의 시기에 주입된 가치체계를 여전히 이어가거나 믿는 사람들은 창업가로서 훨씬 높은 실패율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전환 경제에서 사회주의 개인들이 창업 활동을 위해서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Bährisch, 2014).

Locay & Sanguinety(1996)의 연구에 의하며, 쿠바계 미국인의 창업 능력에 쿠바에서의 사회주의 체제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쿠바에서 보낸 세월이 길수록 그 사람이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증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관련 통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창업능력과 사회주의 쿠바 내 거주기간 사이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의 단점은 쿠바에서의 이민 과정이 그들의 창업적 능력과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미국에서 자영업자가 되려고 하는 의사결정과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Locay & Sanguinety, 1996). 강동완과 박정란(2014)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공식적 허가 하에 나온 북한 주민 100명에게 “귀하는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대상자 69%는 자본주의 경제를 더 지지한다고 답하여 20%에 그친 사회주의 경제를 선호하는 사람보다 다수로 조사됐다.

이처럼 북한 내에서 대체로 ‘8.5 대 1.5’의 압도적인 비율로 집단주의적 성향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약 ‘7대 2’의 비율로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규덕, 2020)

2.4 사회적응성

사회적응성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 그가 소속된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나 질서에 자신을 맞추어 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하는 성질”로 규정하고 있다. 최백만·변상해(2015)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기대와 요구에 개인의 행동을 맞춰가는 것이 사회적응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도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적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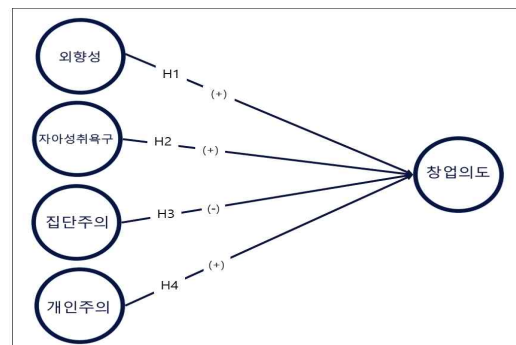
이권일(2015)은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으로 정의되는 심리적 개념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기대요구 등에 개인행동을 맞추어가는 과정이라는 사회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북한 사회는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공식적인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개인상행위 등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경제관리부문 및 문화부문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규제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형법 등에 대한 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 규정의 신설은 그 만큼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사회에 상당히 확산되어 법적인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 설계와 가설 설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성격 특성과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외향성, 자아성취 욕구, 집단주의, 개인주의의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그림 1>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 결정요인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구축하고, 독립변수는 외향성, 자아성취욕구, 집단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연구모형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공한 창업가는 주어진 환경 및 주변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개방적이고 외향적 혁신 추구의 특성이 있다. 개방적 사고와 외향적 성격은 경제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높여서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더 나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조정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논거는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Park & Kim(2014)에 따르면 외향성은 창업가 정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이러한 창업가 정신은 창업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Zhao & Seibert(2006)의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창업의 특성으로 외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가의 주요 성격 특성으로 '5대 성격 요인 모델(The Big Five Personality Model)' 상의 '외향적'이고 '경험에 개방적'인 성향을 외향성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북한이탈주민의 외향성이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을 연계하면, 개인의 자아성취욕구가 창업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성취욕구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대한 도전과 자기 비전에 대한 실행을 통해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로 설명된다. 이러한 「자아성취욕구」는 경제적 성취욕구와 달리 개인의 내면적 목표에 대한 성취욕구로서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우진(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아성취 요인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의도에 강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에도 자아성취욕구 요인은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가설 2: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성취 욕구는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치관이란 개인의 사고 구조를 뜻하며 주관적 구조화, 부정, 반성,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으며(Rosenberg, et al., 1988), 개인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의 이념이나 가치관 등이 생태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이미 1980년대 가족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 생태환경을 구성 요소 중에 이념과 정치체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며 개인의 가치와 삶의 양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Triandis, 1995).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념과 정치제도 등을 고려한 연구 접근법이 적용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집단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전에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였다는 점에서는 어느 이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떠나온 사회와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전혀 다른 정치 및 경제적 이념성을 지향하는 점에서 그들의 경험은 매우 특이하며 독특하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 가치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보다 발달한 창업에 있어서 사회주의 가치체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사적 부를 축적하고 거래를 통한 이득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가치체계와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의 안정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는 서로 부(-)의 관계성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가치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에 따라 개인의 인권 및 이익을 희생하는 정도를 집단주의로 정의하고, 집단주의 가치관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북한이탈주민의 집단주의는 창업의도에 부(-)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북민이 자본주의 사회로 편입되면서 생겨난 개인주의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적 부 축적과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금지하였던 공산주의 사회와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노력과 시장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목표달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창업의도와 개인주의는 서로 정(+)¹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개인의 목표달성을 중시하는 정도를 개인주의로 정의하고, 개인주의 가치관은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주의는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래의 변화를 탐지하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자원의 생산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을 창업가로 정의할 수 있다(Drucker, 1994). 즉 이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추론하면, 사회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에 대한 성공 기대감 또한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생성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경험해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따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성이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와 창업의도 간에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추가적으로 사회주의적 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응성의 매개적 효과를 살펴 볼 것이다.

가설 5: 사회적응성은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와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자료 수집 및 측정 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모형과 가설에서 정의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외향성에 관한 설문문항은 Bährisch(2014), John et al.(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아성취욕구는 박남태(2016), 육창환(2014), 박경석(2014), 윤백중(2011)의 연구를 참조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치체계는 Bährisch(2014), 황의정(2016a), 황의정(2016b)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인주의 가치관과 집단주의 가치관 각각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응성은 황의정(2016a), 황의정(2016b)의 연구를 참조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창업의도는 박남태(2016), 육창환(2014), 박경석(2014), 윤백중(2011)의 연구를 참조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정의
외향성	원활한 사회적 연결을 통한 개방적 혁신 추구 성향
자아성취욕구	내면의 목표와 자기 비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도
집단주의	집단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가치관
개인주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개인의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가치관
사회적응성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과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정도
창업의도	자신의 사업을 소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중 2019년 10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며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2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분포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2> 응답자 인구통계적 분포

전체		사례수 (명)	계(%)
		(223)	100.0
성별	남자	33	14.8
	여자	190	85.2
연령	19세 이하	5	2.2
	20대	61	27.4
	30대	71	31.8
	40대	51	22.9
	50대	29	13.0
	60대 이상	6	2.7
탈북기간	1년 미만	76	34.0
	1년이상~3년미만	14	6.3
	3년이상~5년미만	12	5.4
	5년이상~10년미만	43	19.3
	10년이상	78	35.0

IV. 연구결과

4.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으로 외향성과 자아성취욕구로 구분하였고, 사회주의 가치체계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이밖에도 사회적응성과 창업의도 변수를 설계하였다. 이들 변수간의 개념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을 이용하였으며,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외향성(요인1), 자아성취욕구(요인2), 집단주의(요인3), 개인주의(요인4), 사회적응성(요인5), 창업의도(요인 6)으로 6개 요인이 모두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은 총 변량의 67.61%를 설명하고 있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측정항목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3	요인4	요인4
외향성	외향성1	.657	.784	-.048	.121	-.090	.017	.131
	외향성2	.700	.799	.143	-.026	.116	-.017	.163
	외향성3	.693	.757	.213	-.063	.234	-.124	-.030
자아성취욕구	자아성취욕구1	.639	.199	.739	.081	.178	-.122	-.008
	자아성취욕구2	.743	.028	.778	-.041	.207	-.093	.289
	자아성취욕구3	.747	.072	.828	-.045	-.065	.069	.211
집단주의	집단주의1	.824	.075	.019	.877	-.037	.219	.005
	집단주의2	.823	-.034	-.012	.842	-.088	.271	.175
개인주의	개인주의1	.708	-.001	.128	-.265	.764	-.025	.191
	개인주의2	.723	.186	.125	.094	.780	-.233	.032
사회적응성	사회적응성1	.522	.049	-.067	.102	.044	.704	.082
	사회적응성2	.603	.000	-.017	.127	-.070	.754	-.112
	사회적응성3	.591	-.076	-.043	.103	-.124	.736	.127
	사회적응성4	.677	-.103	.019	.155	-.130	.786	.088
창업의도	창업의도1	.732	.130	.237	.014	.005	-.030	.811
	창업의도2	.695	.146	-.003	.084	.002	.072	.813
	창업의도3	.507	.166	.080	.056	.350	-.002	.589
	창업의도4	.602	-.158	.319	.047	.078	.241	.640
고유치(eigenvalue)			2.023	2.110	1.661	1.525	2.508	2.360
설명분산			11.237	11.721	9.228	8.471	13.936	13.019
누적분산			11.237	22.958	32.186	40.657	54.593	67.612

4.2 측정항목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측정모형 평가는 통계검증에서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중심

으로 검증한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대한 복합신뢰도 (CR)와 평균분산추출(AVE) 등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다 (Fornell & Larcker, 1981). 복합신뢰도 측정은 측정변수에 대해 내적 일관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보통 0.7 이상이 평가기준으로 사용되며, 평균분산추출(AVE)에 대한 구성개념은 일반적으로 측정변수를 설명하는 분산에 대한 크기를 말하며, 0.5 이상이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판별타당성에 대한 검증 방법은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이 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성립한다(Yu, 2012; Chin, 1998; Fornell & Larcker, 1981). <표 4>와 같이 측정모형의 각 차원이 AVE가 0.5 이상이 되거나,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0.708~0.971사이(0.7이상이 가장 바람직함), 측정된 값의 요인부하량의 t-값들이 1.965(또는 2.0)이상일 때 유의하기 때문에(유의수준 0.05, t-값/CR(Critical Ratio)>1.965, $p<0.05$),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Yu, 2012; Bagozzi & Yi, 1988; 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2012). <표 4>에서 t-값은 부트스트래핑(표본 수 1000)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값이다.

<표 4> 측정모델 결과

잠재변수	측정항목	요인 부하량	t-값	C.R.	Cronbach's	AVE
외향성	외향성1	0.743	8.465	0.841	0.729	0.640
	외향성2	0.904	26.013			
	외향성3	0.741	7.811			
자아성취 욕구	자아성취욕구1	0.708	11.157	0.859	0.759	0.671
	자아성취욕구2	0.892	48.692			
	자아성취욕구3	0.847	23.587			
집단주의	집단주의1	0.825	4.633	0.895	0.799	0.811
	집단주의2	0.971	10.658			
개인주의	개인주의1	0.899	17.066	0.818	0.571	0.694
	개인주의2	0.760	5.589			
사회 적응성	사회적응성1	0.753	4.335	0.833	0.764	0.559
	사회적응성2	0.577	2.408			
	사회적응성3	0.806	4.476			
	사회적응성	0.829	4.317			
창업의도	창업의도1	0.837	31.543	0.843	0.751	0.575
	창업의도2	0.752	16.278			
	창업의도3	0.689	12.080			
	창업의도4	0.746	13.457			

<표 5>과 같이 측정모형을 살펴보면,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행렬 값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인 0.416(집단주의와 사회적응성)의 제곱인(0.416)²=0.173보다 집단주의의 AVE(0.811)와 사회적응성의 AVE(0.559)가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Yu, 2012; Fornell & Larcker, 1981; Hulland, 1999).

<표 5>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변수	1	2	3	4	5	6
1	외향성	0.800					
2	자아성취 욕구	0.252	0.819				
3	집단주의	0.023	-0.009	0.901			
4	개인주의	0.226	0.316	-0.201	0.833		
5	사회 적응성	-0.088	-0.064	0.416	-0.228	0.748	
6	창업의도	0.238	0.427	0.186	0.258	0.172	0.759

주: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 값의 제곱근 값

4.3 구조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PLS는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최대화하며, 즉 분산설명력 최대화 또는 구조오차의 최소화가 목적이다. 이는 LISREL나 AMOS 등을 사용하는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Chin, 1998; Vinzi et al., 2010). 이를 대신에 <표 6>과 같이 다음 세 가지(R²값, 중복성(redundancy)값, 공통성(communality)값을 종합하여 예측적합도와 전반적 적합도를 판단한다(Chin, 1998; Hulland, 1999; Tenenhaus et al., 2005).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변수	R ²	중복성	공통성
외향성			0.640
자아성취 욕구			0.671
집단주의			0.811
개인주의			0.694
사회 적응성			0.559
창업의도	0.287	0.026	0.575
평균	0.287	0.026	0.658
전반적 만족도	.435		

첫째,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정계수 R²값을 예측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며, 상(0.26이상), 중(0.13~0.26), 하(0.02~0.13)로 분류하여 판단하며, 내생변수의 R²값을 살펴보면 .287(>0.26)로 나타나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내생변수의 중복성(redundancy) 값을 예측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예측적합도가 있으며, .026로 나타나 예측적합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구조모형에 대한 전반적 적합도는 모든 내생변수의 R²의 평균값과 각 차원들의 공통성(communality)평균값을 곱한 값의 제곱근의 값이며, 상(0.36이상), 중(0.25~0.36), 하(0.10~0.25)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적합도(Goodness-of-Fit Index)는 .435로 나타나 GoF의 평가기준이 상인(0.44>036)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 할 수 있다.

4.4 가설 검증

구조모형 적합성을 기본 토대로 하여 구조모형의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절차에 따라 각 연구가설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재표본 기법은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된다(Cotterman & Senn, 1992). PLS algorithm을 통해 나온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과 PLS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통해 나온 경로계수 t-값 및 유의성 검증 결과를 <표 7>에 설명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방향성(+, -) 가설에 대한 단측검정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alpha=.05$ 에서 $|t| > 1.645$ 이면 경로계수와 가설이 유의하다고 판단한다(Yu, 2010, pp. 254-256).

H1~4을 검증한 결과, 외향성($t=4.903$), 자아성취욕구($t=2.361$), 개인주의($t=2.760$)는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주의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응성의 매개효과 분석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간접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추정이 가능한 Hayes(2013)의 PROCESS for SPSS Macro Program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을 계산하기 위해 표본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포를 갖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부트스트랩은 아주 효과적이다(Hayes, 2013; 제미경·전향란, 2016). 본 연구에서는 5000번의 부트스트랩 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주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주의가 사회적응을 거쳐 창업의도에 미치는 개별매개효과($X \rightarrow M \rightarrow Y$)의 크기($ab=0.3371(0.075)=0.025$)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015, 0.068)에 0이 포함되어 있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표 9> 경로).

개인주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을 거쳐 창업의도에 미치는 개별매개효과($X \rightarrow M \rightarrow Y$)의 크기($ab=-0.325(0.179)=-0.058$)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109, -.023)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1> 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a=-.325, p<.001$). 사회적응성이 높아질수록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b=.179, p<.001$). 그러므로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성을 매개로 해서 창업의도를 -0.058단위 만큼 낮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질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응성을 거치게 되면 창업의도가 낮아질 것이다.

<표 7> 가설 검증결과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검증 결과	
H1-1	외향성	→	창업의도	0.3487	0.0711	4.9026	채택
H1-2	자아성취 욕구	→	창업의도	0.1466	0.0621	2.3607	채택
H1-3	집단주의	→	창업의도	0.1466	0.0621	2.3607	기각
H1-4	개인주의	→	창업의도	0.193	0.0699	2.7605	채택

<표 8> Hayes PROCESS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SE	t-값
사회적응(M)	집단주의(X)	.337	.050	6.808***
창업의도(Y)	집단주의(X)	.107	.043	2.489***
창업의도(Y)	집단주의(X)	.082	.047	1.736
	사회적응(M)	.075	.057	1.320

** $p<.05$, *** $p<.01$

<표 9> 간접효과경로와 부트스트랩 분석결과

구분	간접효과 경로	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경로	집단주의 → 사회적응 → 창업의도	.025	.021	-.015	.068

<표 10> Hayes PROCESS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SE	t-값
사회적응(M)	개인주의(X)	-.325	.080	-4.079***
창업의도(Y)	개인주의(X)	.247	.064	3.848***
창업의도(Y)	개인주의(X)	.305	.065	4.698***
	사회적응(M)	.179	.052	3.452***

** $p<.05$, *** $p<.01$

<표 11> 간접효과경로와 부트스트랩 분석결과

구분	간접효과 경로	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경로	개인주의 → 사회적응 → 창업의도	-.058	.022	-.109	-.023

V. 결론 및 시사점

실증분석결과를 자세히 논의하면, 외향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개방적 성향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외향성이 중요하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에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아성취욕구 요인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는 논거와 같이 높은 자아성취욕구는 창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창업자들이 가지는 스스로의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북한이탈주민들도 동일하게 부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인의 목표달성 등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사회주의적 가치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주의 가치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한다는 총체적 가설은 지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 창업의도간의 사회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개인주의는 사회적응성을 거쳐 창업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응성을 거치지 않고 창업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창업의도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동 결과를 사회 진출 이후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이들의 창업 관련 성향을 확인해 줄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이 장래 창업을 선택함에 있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주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남한 사회의 가치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제도 보다는 사람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사고 및 행태로 인해 남한에서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하나원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지자체 또는 평생교육 기관 등에서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창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서 적절한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받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것이다. 따라서 대안학교 등에서 청소년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 대상 창업 교육 및 단기연수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 결과는 남한 사회의 생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설문결과로서 북한주민 일반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내 사회주의 체제의 이완 등 사회변화에 따라 장사·자영업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내 북한 주민들의 창업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과 북한 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

- 강동완·박정란(2014).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조사: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39(2), 110-151.
- 강영욱(2012).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실행의지에 관한 연구: 창업 지원제도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김도영·유태용(2002). 성격의 5 요인과 조직에서의 맥락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5(2), 1-24.
- 남북하나재단(2019).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노덕규(2020).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경석(2014). *중국동포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박남태(2016).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적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박재환·김우중(2014). HEXACO 성격요인과 창업가정신, 기업성과간의 관련성 연구. *중소기업연구*, 36(2), 147-168
- 박재환·안승권·윤인철(2011). 가정환경, 경력지향성 및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4(4), 2499-2520.
- 양재장·남중현(2015). 창업동기와 창업교육이 창업준비행동, 자기효능감 그리고 외식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경남지역 창업교육수료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30(6), 47-66.
- 양현봉·박종복(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KIET.
- 유봉호(2015).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3), 51-60.
- 육창환(2015).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 멘토링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윤백중(201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이권일(2015).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위기개입 기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6, 55-82.
- 이우진(2013). 대학생의 직업선택 동기가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3), 113-124.
- 이준호(2020). *북한이탈주민 창업사례 분석과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안 모색: 창업의지의 실증분석과 창업사례 중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제미경·전향란(2016).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문제경험이 재무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조회사에 대한 태도와 서비스품질만족도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분석. *소비문화연구*, 19(3), 157-174.
- 조봉현·최이섭·남정민·이준호(2015). 북한이탈주민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산·학·관 협력체제(D.I.K. 모델)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7(4), 261-278.
- 통일부(2020). *2020 통일백서*. <https://www.kinu.or.kr/brd/board/726/L/menu/382?brdType=R&thisPage=1&bbIdx=58520>

- &searchField=&searchText=
- 황의정(2016a).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범죄규정화 (crime-definition)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의정(2016b).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1(1), 115-149.
- Bagozzi, R. P., & Yi, Y.(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ährisch, O.(2014). *Entrepreneurship in Transition Economies: Individual Level Analysis of Entrepreneurial Intent and Entrepreneurial Success*.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Chin,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Marcoulides, G.(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95-336.
- Cho, B. H., Choi, E. S., Nam, J. M., & Lee, J. H.(2015). Study on a Plan for the Activ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s Start-up of Business Based on the D.I.K. Model,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7(4), 261-278.
- Cotterman, W., & Senn, J.(1992).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Digman, J.(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1), 417-440.
- Fornell, C., & Larcker, D.(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oldberg, L.(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8(1), 26.
- Hair, J., Sarstedt, M., Ringle, C., & Mena, J.(2012). An Assessment of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3), 414-433.
- Hayes, A. F.(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ough, L., & Schneider, R.(1996). Personality Traits, Taxonomies, and Applications in Organizations. *Individual Difference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 31-88.
- Hulland, J.(1999).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LS)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Four Recent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2), 195-204.
- Hwang, E. J.(2016). *The Legal Control over Non-socialist Behaviour in North Korea: Focused on Legal Crime-definitio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Hwang, E. J.(2016). The Legal Control over Daily Lives of People in North Korea: Focused on Non-socialist Behaviour and Legal Crime-definition,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1(1), 115-149.
- Jaе, M. K., & Jeon, H. R.(2016).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Consumer Problems Regarding the Repurchase Intention : Focused on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the Attitude of the Industry-Type Funeral Service and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9(3), 157-174.
- John. L., Naumann, L., & Soto, C.(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3rd. ed.)*, 114-158.
- Kang, D. W., & Park, J. R.(2014). The Current State of Changes to North Korean Society under the Kim Jung-eun Regime: With a focus on an in-depth interview investigation with North Korean people,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39(2), 110-151.
- Kang, Y. U.(2012). *A Stud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s of Potential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Katz, J. A., & Gartner, W. B.(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 Kim, D. Y., & Yoo, T. Y.(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ontextual performance in work organizations, *Korean J Ind Organ Psychol*, 15(2), 1-24.
- Korea Hana Foundation.(2019). *2018 Settlement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eoul: Korea Hana Foundation.
- Korea Hana Foundation.(2021). *2020 Settlement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eoul: Korea Hana Foundation.
- Lee, J. H.(2020). *Startup cases analysi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earching for new plans of support policy: focu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entrepreneur intention and the cases of startup*,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Northeast Asian Studies, Chung-Ang University.
- Lee, G. I.(2015). Effects of Self Efficacy on the Cultural Acceptability in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s of Risk Intervention,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16, 55-82.
- Lee, W. J.(2013). The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Reasons Affecting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3), 113-124.
- Locay, L., & Sanguinetti, J.(1996). The Effect of Socialism on the Entrepreneurial Abilities of Cuban-Americans. *Cuba in Transition*, 6, 320-327.
- MINISTRY OF UNIFICATION(2020). *2020 UNIFICATION WHITE PAPER*. <https://www.kinu.or.kr/brd/board/726/L/menu/382?brdType=R&thisPage=1&bbIdx=58520&searchField=&searchText=>
- Noh, K. D.(2020).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North Korean*

- refugees: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socialist value system and social adaptability. Master's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Park, J. W., & Kim, W. J.(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HEXACO Personality, Entrepreneurship and The Firm Performance.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6(2), 147-168.
- Park, J. W., An, S. K., & Yoon, I. C.(2011).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4), 2499-2520.
- Park, K. S.(2014). *Impact of Korean-Chinese'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Park, N. T.(2016).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dapt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Shapi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A. Kent, D.L. Sexton, & K.H.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Tenenhaus, M., Vinzi, V., Chatelin, Y., & Lauro, C.(2005). PLS Path Modeling, *Computational Statistics & Data Analysis*, 48(1), 159-205.
- Triandis, H. 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2.
- Vinzi, V., Chin, W. W., Henseler, J., & Wang, H.(2010). *Handbook of partial least squares*, Berlin: Springer.
- Yang, J. J., & Nam, J. H.(2015). Entrepreneurship Moti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tisfaction the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the Effect on Self-Efficacy and Food Service Entrepreneurship,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30(6), 47-66.
- Yang, H. B., & Park, J. B.(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Youth Entrepreneurship Ecosystem*,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IET.
- Yang, J. J., & Nam, J. H.(2015). Entrepreneurship Moti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tisfaction the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the Effect on Self-Efficacy and Food Service Entrepreneurship,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0(6), 47-66.
- Yoo, B. H.(2015). The Effect of Achievement Need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Start-up Intention: Focus on Mediation Role of Start-up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51-60.
- Yoon, B. J.(2011). *Effects of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y undergraduate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Yook, C. H.(2015).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 Yu, J. P.(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and understand*, Hannarae Publishing Co.
- Zhao, H., & Seibert, S.(2006).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Entrepreneurial Status: A Meta-Analytical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2), 259-27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Values of Socialism to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Noh, Kyu-Duk*
Lee, Jung-Hee**
Lee, Il-H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of related variables in order to promote entrepreneurship, which is one way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and stabl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is firstly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secondly,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st value system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empirical analysis target was 223 North Korean defector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dispos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lue system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PLS was used. And PROCESS for SPSS Macro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dap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system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extraversion factor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level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self-fulfillment desire factor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was also found that individualist valu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collectivist value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daptability betwee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ndividualist value has a direct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ithout engaging social adaptability.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 Extroversion, Achievement Motivation, Collectivist Perspective, Individualist Perspective, Social Adaptability,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irst Author, Ph. D candidate, Major in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Department of Northeastern Asian Studies, Chung-Ang University, kdnoh87@mofa.go.kr

** Co-Author, Professor, School of Economic, Chung-Ang University, lih2114@ca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lih2114@cau.ac.kr